

## 추석 가정 예배

(가급적 추석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도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 30:11~12 ..... 다 함께

주님께서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찬 송 ..... 589.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 함께

교 독 ..... 105. 감사절(1) ..... 다 함께

기 도 ..... 가족 중

성 경 봉 독 ..... 시 139:1~4 ..... 인도자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 씬 ..... 감사와 다짐 ..... 가족 중

찬 송 .....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함께

주님의 기도 ..... 다 함께

## <함께 나눌 말씀>

### “감사와 다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입니다. 이 <오디세이아>에는 멘토와 멘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멘토’는 도움을 주는 자이고 ‘멘티’는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전쟁 길에 나선 오디세우스는 자기 아들을 오랜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깁니다. 이 ‘멘토르’가 곧 ‘멘토’입니다. 멘토르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찾는 모험에 나서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은 20년 만에 고향에서 상봉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의젓하게 성장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에게 멘토르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멘토르 덕에 모험을 떠날 수 있었고 또한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을 잘 아는 분이자 어느 곳이나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오묘하고 섬세하신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려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이면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인한 고통이 숨어있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흠 없음을 아시고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귀 기울여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 나를 잘 알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뢰할 만한 대상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것도 다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알고 나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만나 인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 추석입니다. 소중한 이 명절에 사랑하는 이와 사랑했던 이를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내 편이 되어주었던 이들 덕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믿고 응원해 준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그의 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한가위가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전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